

삼위일체: 은혜, 사랑, 교제

고린도후서 13:14
목회 인턴 클레망 텐도
2022년 1월 16일

소개

오늘 우리는 New City Catechism의 세 번째 질문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 하나님을 다른 종교의 신들과 비교하여 독특하게 만드는 교리인 삼위일체에 관한 것입니다.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그것들에서 우리는 삶의 충만함과 존재 자체를 봅니다. 온 우주는 삼위일체 사역의 열매입니다. 창조와 구속에서 삼위일체의 세 위격은 항상 함께 일하셨습니다. 이 세 인격이 없이는 창조도 없고 구원도 없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비, 공의, 사랑, 기타 교리를 생각할 때 우리는 삼위일체가 그 모든 것의 기초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교리문답 질문을 읽고 그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질문 3: 하나님 안에는 몇 위가 있습니까?

답: 한 분이시며 살아계신 참 하나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이 있습니다. 그들은 본질이 동일하고 권능과 영광이 동일합니다.

삼위일체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 도표에서 볼 수 있는 일곱 가지를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Kevin DeYoung 목사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상기시킵니다.

- (1)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 (2)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 (3)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 (4)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 (5) 아버지는 아들이 아닙니다.
- (6) 아들은 영이 아닙니다.
- (7) 그 영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세 위격은 모두 한 분이시며 본질적으로 동등하십니다. 그들 중 어느 것도 다른 것보다 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우리와 창조물과 상호 작용합니다. 아버지는 창시자요 계획자이십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계획을 실행하고 성취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 계획을 적용하고 인봉하십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 세 가지가 별개로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삼위일체의 세 위격이 협력하여 일하십니다. 그들은 함께 일합니다.

함께 연주하는 세 명의 음악가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한 곡에서 우리는 Andrew가 키보드를 연주하고 Clement가 어쿠스틱 기타를 연주하고 Daniel이 베이스 기타를 연주하는 것을 듣습니다. 경쟁이 없습니다. 우리 각자는 각자의 기술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조화로운 소리를 만들기 위해 함께 일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삼위일체의 세 위격이 항상 조화를 이루며 함께 일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삼

위일체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개념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창조에서 삼위일체를 봅니다. 특히 창세기 1:26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씀하신 사람의 창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구속 안에서 삼위일체를 봅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구속을 계획하셨고, 아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계획을 실행하셨고, 성령은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적용하셨습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신은 신이 되기 위해 어떤 외부적 관계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는 외적인 사랑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 분이 아낌없이 희생적으로 사랑하실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성경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서 볼 수 있는 삼위일체 교리에 주의를 집중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함께 이사야서 40장 8절을 읽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시여, 당신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당신의 완전한 세 인격으로 세상에 존재했던 사랑인 당신의 사랑 안으로 우리를 데려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교화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피조물이며 오직 당신만이 창조주이시며 무한하심을 인정하도록 도와주소서. 경배할 때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드는 경이로움을 주소서. 당신은 우리의 삶에서 이제와 영원히 더 영광스럽게 되소서.

아멘.

저는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을 매주 주일 예배 끝에 축복으로 들으며 자랐습니다. 이것은 한 저자가 말했듯이 "삼위일체적 공식 때문에 신약 전체에서 가장 풍성한 축도"입니다. Charles Hodge는 "구속의 모든 이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크리스 목사가 매주 일요일 여기에서 선언하는 민수기 6장 22-27절의 구약 축도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24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며

25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말씀의 요점은 세 가지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오늘의 성경 구절에서 나옵니다.

포인트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포인트 2: 하나님의 사랑

포인트 3: 성령의 교통

포인트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은혜란 무엇입니까? 자적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호의입니다. 은혜는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에게 베푸는 자비와 사랑, 친절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은 은혜가 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들 하나님은 첫 인간 아담이 우리 영혼에 가한 피해를 되돌리기 위해 인간으로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로마서 5:12,15

12 아담이 범죄할 때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의 죄가 사망을 가져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5 그러나 아담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한 사람 아담의 죄가 많은 사람을 죽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이 다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베푸신 용서의 선물은 훨씬 더 큼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분은 죄를 지은 죄인들이 벌을 받지 않도록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 조상 아담이 시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 구세주가 우리를 대신해야 했습니다.

중재자는 갈등하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 사이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기 위해서는 중보자가 하나님이지면서 동시에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Alistair Begg 목사는 그것을 잘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원하신다면 구세주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형벌을 짊어져야 한다면 구세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죄의 형벌을 짊어진 사람이 자기 자신이 죄가 없어야 한다면 예수님 외에 누가 이 자격을 갖추겠습니까? 친구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할 수 있는 특별한 자격이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받는 구원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꺼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봅니다.

포인트 2: 하나님의 사랑

친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것에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받는 제한된 인간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미국과 콩고에 동시에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한 번에 한 곳에만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처럼 보편적이고 영원합니다.

삼위일체의 세 위격은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항상 서로를 완벽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을 간절히 원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사랑의 관계에 이미 만족하셨기 때문에 사랑 받는다고 느끼기 위해 어떤 피조물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군가를 이용하거나 조종하지 않고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숨겨진 계획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중 누가 우리를 이용하려는 사람의 사랑을 받아 들일 수 있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진심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우리를 조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줄 것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외에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벌을 담당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얻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도 아버지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롬 5:8).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정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는 아무나 잘 사랑할 수 없습니다. 먼저 삼위일체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이기적이지 않고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교활하거나 순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기 위해 사랑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방금 우리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부모 여러분, 왜 어린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들이 당신을 위해 뭔가를 해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당연히 아니지. 그들이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신은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아들과 딸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우리에게서, 심지어 우리 자신에게서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과의 교제를 통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찾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 요점입니다.

포인트 3: 성령의 교통

북아프리카의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삼위일체 안에서의 사랑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비유를 제공합니다. 아버지는 사랑하시는 분, 아들은 사랑받는 분, 성령은 사랑 그 자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삼위일체의 위격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이 "성령의 교통"에 대해 의미한 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영은 삼위일체 안에서의 관계의 접착제입니다. 예를 들어, 사울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을 때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사울에게서 그의 영을 거두셨습니다. 그 영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교제를 인봉하고 유지합니다.

우리 모두는 중심에 사랑이 있는 관계를 갈망합니다. 우리는 사람, 자연, 심지어 애완동물에게서도 그것을 찾습니다. 그러나 지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그러한 관계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3:5-8은 말합니다.

5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7 내가 네게 '네가 거듭나야 한다'고 말한 것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8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으로 난 자마다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아들과 딸로서 "아바 아버지"와 교제를 나눕니다. (로마서 8:15; 갈라디아서 4:6).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들, 특히 동료 신자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신자로서 우리는 서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성장시키도록 서로를 격려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는 이것 또한 우리를 돕습니다! 성령은 예배, 기도, 성례전에서 우리의 교제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교회를 One Voice 교제라고 하는 이유는 믿는 자로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 한 교제를 나누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에서 우리는 함께 예수님을 더욱 분명하게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날 밤에 약속하신 대로 사랑 많은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신뢰를 두셨습니까? 그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 성령의 교제를 경험하십니까? 그런 믿음이 없다면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적용되

지 않는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몇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첫째, 삼위일체의 세 위격은 모두 창조와 우리의 재창조에 참여했습니다. 삼위일체의 세 분은 모두 우리의 구원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아들은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주기 위한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완성된 계획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분의 자녀로 인봉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기도에서 세 사람을 모두 언급합니다. 구원의 전 과정에서 똑같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는 사랑이 우리를 초월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영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려면 영생을 보증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면 그분의 사랑에서 끌어내야 합니다.

셋째, 삼위일체는 사랑 그 자체처럼 위대한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 가르치고 우리를 위해 그것을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제한적이며 모든 인간 관계에 대해 그분의 도움을 구해야 함을 상기시키십니다.

넷째, 하나님은 죄인으로서 당신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어쨌든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를 조금 아는 인간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삶과 죽음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계시는 완전하신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이 분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을 초대합니다. 첫째, 아직 예수님을 당신의 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마음이 사모하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사실, 성령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말씀에 영감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충만함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친구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주어졌다. 만일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성령은 당신을 아버지와의 영원한 관계로 인치실 것입니다. 당신은 삼위일체의 세 구성원 모두와 교제를 발견하게 될 것이며 삶과 죽음 모두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멋진 선물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기적인 이유가 아니라 대가를 받기 위해. 대신 우리는 우리가 사랑받는 방식으로 사랑합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4:10-11, 19,

10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11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19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사랑의 기초입니다. 친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계신 영원하신 아버지와의 영원한 교제의 기쁨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창조와 구속 안에서 당신 자신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나타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멀리 있을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르렀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당신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당신과 교제하게 하시는 성령에 대해 당신을 찬양합니다. 매 순간 당신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겸손하게 당신을 경배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와 영원히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One Voice Fellowship